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큰 영광 중에 계신 주(찬41/새20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이상원 집사 2부/이봉운 집사 3부/이상노 집사 4부/이가현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기억하라(Deborah Govenor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누가복음(Luke) 18:9-14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5:9-18

말씀 Message 1, 2, 3부..... Rev. SeungWon Jung **정승원 목사**
누가 더 의로운 자인가?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15) 표적 이후, 표적이 되다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나 같은 죄인 살리신(찬405/새305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 Rev. SeungWon Jung **정승원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뱀에게서 배우다

Learn from Serpents



손용주 목사 / Rev. Yongjoo Son

얼마 전 '기획자의 습관'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 문구에서 눈이 멈추어 섰습니다. '뱀은 인류 최초의 사과 마케터다.' 책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뱀은 단순히 사과 맛과 건강상 유익 같은 뻔한 주제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즉,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무언가로 접근했고 그것이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뱀이 여자를 타겟팅 했음을 강조하면서, 구매 결정은 여자에게 있으니 여성에게 어필하는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때 선교 여행을 앞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왜 하필 뱀일까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지혜로운 동물은 거북이, 코끼리, 부엉이(부리부리 박사님) 등입니다. 뱀은 후보에도 없는데 굳이 뱀을 예로 드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가 바로 우리의 조상을 타락으로 이끈 그 지혜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류를 죄에 빠뜨린 지혜를 역이용해 이번에는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형통, 평안, 관계' 이런 것들은 누구나 종교에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알면서도 여지껏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접근해서는 성공할 리가 없는 것이죠. 뱀은 인간 내면에 있는 야심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표면적인 필요를 넘어 영적이고 심리적인 근본 갈망을 꿰뚫어 봄으로써 마케팅에 성공했습니다. 주님은 전도에도 이런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신학자 톰 라이트는 '세상의 방법론에 무지해서는 안 되며, 이단을 능가하는 철저한 전략이 기독교에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비버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알려 주신 전략적 아이디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C. S. Lewis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머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아이처럼 순진하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를 외치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꾸욱꾸욱 눌러 적어 내던 어린 시절의 열심으로 VIP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전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의 머리입니다. 뱀의 지혜입니다. 오늘 셀 모임에서는 VIP를 위한 전도 전략을 함께 세워 보면 어떨까요? 그들이 어떤 영적 갈망에 놓여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누가 하와처럼 관계의 통로가 되어 줄지 정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뱀의 지혜를 역이용해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올 때입니다.

A while ago, I was reading a book 'Planner's Habits.' My eye came to a stop at this phrase. 'Serpent is the humanity's first apple marketer.' What the book was saying was following. Serpent didn't simply approach from well-known themes like taste or health benefits. 'If you eat this, you will see better!' Another words, it approached from something that is not ordinary. It hit the mark. Furthermore, the book continues to stress that it targeted woman and that purchasing decision is with woman. Therefore, marketing must appeal to woman. At that moment, I was reminded of what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 were about to leave for mission, "so be wise as serpents..." Why serpents? When we think of wise animals, they could be tortoises, elephants, owls, etc. Serpent is not even on the list, but it is used as an example. I think about the wisdom that Jesus is speaking of as the same wisdom that led our ancestors to fail. He reverses the use of wisdom that brought failure to humanity and, this time, he says to save people that fallen in sin. 'Good fortune, well-being, relationship' are contents that everyone expects from religion. To approach people, who already knows and yet not seeking, with the same contents will not succeed. Serpent understood the ambition within human beings. Going beyond superficial needs, the marketing is succeeded by penetrating the underlying spiritual and psychological longings. We could understand that our Lord also stressed the need for this kind of strategy for evangelism.

World renowned theologian Tom Wright stressed that 'We must not be ignorant of the world's methods, and Christianity requires a thorough strategy that surpasses heresy.' John Bevere also stressed that 'God's work is accomplished through the strategic ideas He reveals.' C.S. Lewis said, 'What the Lord wants from us is a child's heart and an adult mind.' We began this year, shouting like innocent children, 'Each One, Reach One.' We decided on our VIPs, writing down names of friends who we want to evangelize to. With the final step approaching, we need the mind of an adult. That is the wisdom of a snake. How about, in our cell gathering today, if we strategize evangelism for our VIPs? How about, if we think about what kind of spiritual longing they might have? How about, if we decide who will open the relationship like Eve? Now is the time, we use the serpent's wisdom to retrieve the lost souls.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정승원 목사

누가 더 의로운 자인가? 누가복음 18:9-14

1. 본문의 비유에서 무슨 근거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2.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바울은 비유하나요?

3.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는 예수님을 '둘째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요?

4. 로마서 7장 24-25절에서 바울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했나요?

5. 회개와 성찬이 비슷한 점이 무엇인가요?

적용하기



■ 적용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찬405/새305장)

예배
수요예배팀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분주한 삶 속에 잠시 멈춰 서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할 때,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일주일의 가운데에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베델 수요 저녁 예배는 단순히 한 주의 중간 신앙의 점검을 넘어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20여 명의 예배팀과 30여 명의 워십팀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섬기고 있으며, 강단 위와 아래의 구분 없이 베델의 모든 성도가 한 목소리로 울려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The Heart of Worship! 한 주의 중심, 마음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표어 아래 함께 호흡하며 하나 되는 수요예배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자 남은 한 주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에 고정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인 이곳은 메마른 심령에 생수를 공급하고 기도로 은혜를 쌓아 올리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특히 '리딩지저스'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맞추어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며 성장해 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혼자서는 버거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한 주의 중심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림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조광중 집사

사역 스케치
MIT 개강

즐거운 대학 생활

MIT가 개강하는 날, 경칩이 하루 지난 오늘,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봄의 기운에 놀라 잠을 깨듯이 겨울을 잘 휴식하시고 봄바람에 마음을 싣고 화사한 모습으로 교회를 향해 오시는 MIT 학생들을 바라봅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으셨고,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MIT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많은 일들을 감사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모습을 통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또 깨닫게 해 주십니다. 스트레칭도 힘껏 하시면서 걱정도 아픔도 다 날려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을 마주하며 즐거운 점심시간을 즐기십시오. 도란도란 마주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 속에서 기도할 것들도 나누고, 영육 간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십시오.

엄선된 MIT 수업 하나하나가 부러워서 빨리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힐링 피트니스를 담당하신 선생님의 반듯한 의외와 정장 차림은 많은

학생들을 설레게 하셨습니다. 손뜨개할 니트를 직접 곁게 만들어 입고 오신 선생님의 실력과 열정도 보았고, 진지하게 수업에 열중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들이 십대들로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믿음의 선배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이 배움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시고 또 다른 분을 보여주시며, 그 속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13주 동안 함께하면서 얼굴과 이름도 잘 알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면서 지혜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깊이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어른들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알게 하신 오늘 MIT 개강일이 너무 감사한 하루입니다. 기쁨으로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분들과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

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금요일이 기다려질 것 같아 많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김유미 권사



선교
선교사 파송식

베델의 기도를 품고 선교지로



지난 2월 7일 헵시바 예배에서 베델의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미처 마치지 못한 훈련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먼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과 충성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베델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힘입어, 저는 흑암 가운데 묶여 있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작은 군사로 그 땅에 들어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연약한 발을 씻겨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 주셨던 것처럼, 그 땅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발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좇아갈 때 때로는 시험과 지침도 있었지만,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생명을 얻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누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 또한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쓰임받는 작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의 눈과 귀를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산과 들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베델의 행전을 이어가는 성령의 임재와 복음의 능력이 선교지 가운데에도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베델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의 함성과 찬양의 울림이 선교지까지 이어져, 한 성령 안

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와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인 U국으로 두 가정이 교육 사역과 의료 사역의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갑니다. 초기 정착 과정 가운데 언어와 문화 습득, 그리고 체류 신분의 문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델의 QTIN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육의 양식으로 건강하고 기쁨 가운데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몸 된 베델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델에서 시작된 기도의 불이 선교지에서도 계속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사랑 선교사

예배
베델 오케스트라

찬양 가운데 주신 심



2024년 말, 신혼부부로서 베델에 정착하게 되었고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베델에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2년 동안 2부 오케스트라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다니던 교회를 성인이 된 후 미국에 와서 스스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낯설면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생

각이 듭니다. 저는 일곱 살 때부터 교회 오케스트라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2부 예배를 섬기게 되었을 때에도 큰 감격보다는 '그동안 해 오던 일이니까'라는 익숙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음악으로 예배를 돕는 일은 저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예배를 거의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으로 어린 예배만 드려왔기 때문에 찬송가는 익숙하지만 복음성가는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를 드리며 처음 듣게 되는 찬양의 가사들이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그 가사들이 마치 제 마음을 알고 조용히 위로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이 지칠 때에도 예배 가운

데 앉아 비올라를 들고 연주하는 그 시간은 저에게 힘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단순히 맡겨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도 찬송을 찾게 하시고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음악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는 시간 또한 저에게는 큰 은혜로 느껴집니다.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사실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꾸준히 섬기는 시간을 통해 제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충실히 섬기겠습니다.

조슬기 집사

사역
새생명축제

은혜의 잔치

할렐루야! 소생하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2026년 봄,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새로운 시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배합니다. 베델 공동체는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생명력을 되찾는 은혜의 잔치인 '새생명 축제'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생명 축제의 주제는 'Come and See Again'입니다. 이 짧은 문구 안에는 처음 주님을 만나는 분들을 향한 설레는 초대와 더불어, 잠시 믿음의 자리를 떠나있던 이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축제를 통해 두 부류의 소중한 분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합니다.

첫째, 아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을 'VIP'로 초대합니다. 교회라는 문턱이

낮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베델이 준비한 따뜻한 환대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하늘의 평안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무엇보다 이번 축제는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나, 이민 생활의 고단함이나 예기치 못한 삶의 상처, 혹은 분주한 일상에 잠시 주님 곁을 떠나 계셨던 분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와서 보라"는 주님의 음성은 정죄가 아닌,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베델 공동체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태어나는 부활의 참된 기쁨을 경험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배의 감동 이후에는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코트야드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가 VIP를 기다립니다. 초대받아

오신 VIP분들과 그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신 성도님들이 나란히 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웃음과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주저함보다는 반가움으로, 어색함보다는 용기로 VIP를 작성하고 초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년 부활절, 베델의 모든 마당이 새 생명의 탄생과 돌아온 영혼의 기쁨으로 가득 차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김성균 집사



사역
은퇴목사 조찬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식탁



베델교회에는 매년 구정이 되면 은퇴하신 목사님 내외분들을 모시고 함께 조찬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시며 바쁘게 달려오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제는 후배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격려해 주시는 귀한 섬김에 존경을 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 모임은 지난 한 해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은

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왔음을 함께 나누고, 선배 목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전복죽과 정갈한 반찬을 함께 나누고, 팀장님의 유쾌한 진행 속에 웃음도 즐기며 웃음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교제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헌신과 희생으로 발자취를 남기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려는 마음이 바로 이 모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20장 29절에서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흰 서리가 내린 듯한 머리카락으로 자리를 빛내 주시는 은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뵈며, 우리는 세월 속에 쌓인 믿음과 인내, 그

리고 헌신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 조찬 모임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베델교회의 귀한 믿음의 전통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믿음의 세대가 서로를 축복하며 이어지는 영적 계승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서 걸어오신 기도의 길과 눈물의 헌신,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본이 되고 깊은 울림이 됩니다. 그분들의 삶 속에 스며 있는 신실함과 사랑은 후배 사역자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새롭게 다짐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께 식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베델교회는 단지 지난 날의 수고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의 유산을 오늘에 이어 받아 내일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정티나 목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운유/성경: 박성권 목사
- 사랑/셀/올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상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상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상채플: 이형석 목사
- 예상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중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상 위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요관: 오춘란

KCC 워싱턴 DC 미션 인턴 리더십 학생 및 봉사자 모집

지역광고

잠언 31장 8절의 명령에 따라 매년 7월 80여 명의 2세 중 고등학생 선교팀과 성인 봉사자, 목회자들이 워싱턴 DC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족과 어린이들의 처지를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원에게 전달하는 사역으로, 이를 통해 실제 법안들이 통과되어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자라난 한인 2세들이 Korean-American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게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학교에서 북한 실정을 알리는 클럽을 만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선생님의 감동적인 기부를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 동족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더운 7월 워싱턴 DC에서 2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도와줄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기간: 7월 13일(월)-7월 16일(목)
- ▶ 문의: 박성남 장로 (949)697-8531



<참가자용(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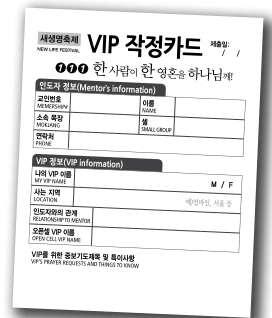


<봉사자용(1세)>

2026 새생명축제: Come and See Again

부활의 기쁨, 다시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예수님! 오는 4월 5일 부활주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 생명력을 되찾는 은혜의 잔치 '새생명축제를 개최합니다. 처음 주님을 마주하는 분들과 잠시 믿음의 자리를 떠나있던 이들이 주님 품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기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는 3월 22일(주일)은 마지막 3차 VIP 작정 주일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그리고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사랑의 용기로 작정해 주세요.



4월 5일(주일), 베델의 모든 마당이 돌아온 영혼의 기쁨으로 가득 차길 기대합니다.

- ▶ 새생명축제일: 4월 5일(주일) 각 예배 시간
- ▶ VIP 교제: 예배 후 코트야드에서 정성 어린 식사와 교제가 이어집니다.
- ▶ 문의: 김성균 집사 (949)838-4110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3,4월)	3/22:	①부-이승호	②부-주진철	③부-이명환	④부-정용익
	3/29:	①부-탁정호	②부-이근제	③부-이원희	④부-최유진
	4/5:	①부-정낙성	②부-최주상	③부-이우용	④부-김도윤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3,4월)	3/21:	김지광	3/28: 류정빈	4/4: 박기승	4/11: OICOS
	강단꽃(3,4월)	3/15: 서은숙, 윤미경, 한동희	3/22: 배사라	3/29: 박선경	4/5: 장석우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최인섭(치과), 간호사-김리자 다음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Tina Nguyen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1-3부 예배는 정승원 목사님(총신 교수/부총장 역임)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 Come & See JESUS! '가시관에서 의의 면류관으로'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며 보여주시는 낮아지심과 죽음을 마음 깊이 다시 새기고, 우리 삶에 닥친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자리에 모든 성도님을 초청합니다.

일시/장소: 3월 30일(월)-4월 3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
*성금요일(4월 3일)에는 성찬식과 베델 콰이어의 특별순서가 있습니다.

◆ 수요일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 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3월 18일(수) 저녁 7시 30분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함께 써 내려가는 베델의 50년사 베델교회 50년 역사 편찬을 위해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베델 성도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가장 은혜로웠던 사역, 포여 등을 회고하고 설문에 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간: 3월 15일(주일)부터 22일(주일) 자정까지
방법: 코드야드 부서에서 서면이나 QR 코드로 온라인 참여 가능
문의: 정광дук 장로 (949)232-3963, bkc50jung@gmail.com



◆ 선교 바자회 물품 도네이션 베델의 성도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모여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그 시간을 떠올리며, 올해 4월 18일 'Come And Best Buy For Mission'이라는 포여 아래 선교 바자회를 준비합니다.

물품 대상: 성도님의 사업체의 물건 또는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은 물건
접수 기간: 3월 15일(주일)부터 3월 25일(목)까지
문의: 이제석 집사 (949) 943-0850, 손석환 집사 (949)241-9359
missionevent@bkc.org

◆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2026-27학년도 신입생 등록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 교육을 통해 지혜와 인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세워갑니다.

모집 대상: TK-9학년 (2026년 가을학기 기준)
TK 지원 자격: 2026년 8월 31일까지 만 4세가 되는 학생
문의: Admin Office (949) 854-4013, admin@bethelclassical.org

◆ 교회학교 온타임 캠페인 3월 8일(주일)부터 4월 5일(주일)까지 5주간 교회학교에서 온타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5주 동안 매주 정시에(9시, 11시) 예배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상이 있습니다.

◆ 뉴멕시코 단기선교 팀원 모집 CIM과 예수살 청년이 뉴멕시코로 여름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함께 나바호 다음세대를 사랑하며 섬기러 갈 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 6월 14일(월)-20일(토)
신청 대상: 고등학생, 청년(등록 후 인터뷰)
문의: 이성우 목사 (818)294-8535

◆ KCC 워싱턴 DC 단기선교 및 인턴 리더쉽 컨퍼런스 북한 인권을 위한 부르짖음, KCC 워싱턴 DC 단기선교 및 인턴 리더쉽 컨퍼런스에 많은 분을 초대합니다. 참가 인턴(2세)과 봉사자(1세)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7면 참고)

기간: 7월 13일(월)-7월 16일(목)
문의: 박성남 장로 (949)697-8531

◆ 선교사역 안경기부 선교지에서 안경 사역으로 배포할 미사용 새 제품 선글라스를 기부해 주세요. (Used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 3월 15일(오늘)까지
장소/방법: 주일-코트야드 Lost and found 부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 주세요.
주중-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 주세요.
문의: 김윤근 집사 (949)966-1135

◆ 기도해 주세요

예살 청2공동체 수양회가 3월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고성란 권사님(고석민 장로의 모친, 고미혜 권사의 시모)께서 3월 7일(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윤원구 집사님(윤계옥 권사의 남편)께서 3월 11일(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권사론 성도님(권광수 집사, 권길자 집사의 딸)께서 3월 12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Contains details for AWANA, weekly services, and news editors.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z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Who is the More Righteous Man? Luke 18:9–14

1. In today's parable, what is the reason that the tax collector is judged to be more righteous than the Pharisee?
2. The verse in 1 Corinthians 15:45 describe Jesus as the "last Adam". Why did Apostle Paul refer to Jesus as the "last Adam"?
3. 1 Corinthians 15:47 refers to Jesus as "the second man". What do you think is meant by this?
4. Why is it that Paul confesses "Thanks be to God, who delivers m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in Romans 7:24-25?
5. What is the similarity between repentance and communion?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